



20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 시범조사 결과

김태후·오년호·지정훈·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상호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내 용 문 의 김태후 연구위원 061-820-2165 taehoo82@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36호
20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 시범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6.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0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 시범조사 결과

김태후·오년호·지정훈·박혜진

요약

'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는 99.37로 전분기 대비 1.15% 하락하며 비관적 전망이 강화

- 농업인 심리지수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영농 여건과 농촌 경제 전반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5개 주요 영역지수(농축산물 수요, 농업생산 여건, 농가소득 여건, 농촌 삶의 질, 농업·농촌 정책 성과)로 구성됨.
- '농가소득 여건'(-0.49%p), '농업생산 여건'(-0.43%p), '농축산물 수요'(-0.22%p), '농업·농촌 정책 성과'(-0.06%p)가 종합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농촌 삶의 질'(0.05%p)만이 유일하게 종합지수 상승에 기여함.

이번 분기 이슈 모니터링에서는 중동 전쟁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인의 영농 계획 조정 의향을 조사

-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사전 확보 의향은 '계획 없음'(43.58%)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사 시점(3월 중순) 특성상 이미 농자재를 확보한 농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계획 있음'(16.79%)과 '고려 중'(35.01%)을 합산하면 절반 이상(51.80%)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상이변 대응과 관련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실천+계획 42.75%)와 '농작업 시기 조정'(31.06%)에 대한 의향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시설 보강·투자'는 계획 없음(49.03%) 응답이 높아 실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1.3. 조사 방법 및 표본추출

- 2026년 1분기 조사는 3월 9일부터 약 2주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10명으로부터 응답 자료를 수집함.¹⁾

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내용	비고
목표 모집단	농림어업조사 농가 (국가데이터처)	- 모집단 영농형태: 곡물(논벼, 식량작물), 과실·채소(채소·산나물, 과수), 축산 - 경지규모: 대(3ha 이상), 중(1~3ha), 소(1ha 미만)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
표본 수	1,010명	-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최종 표본임. - 최초 수집된 1,077명의 응답 자료에 연령, 영농경력, 농업경영 관여도, 응답 성실도 4개 정제 기준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1)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기반 시범조사로 일반 농가 전체의 평균적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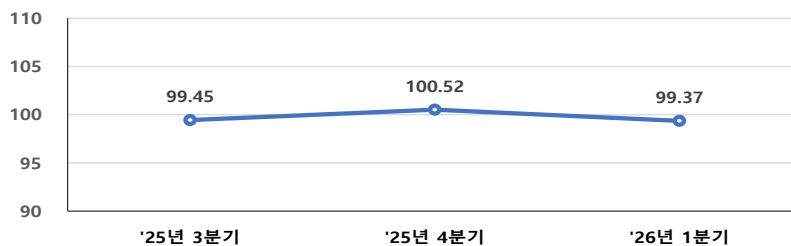
'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조사 결과

2.1. 농업인 심리지수

'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는 99.37로 전분기 대비 1.15% 하락

- 농업인 심리지수는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영농 여건과 농촌 경제 전반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며, 5개 주요 영역지수를 이용하여 산출됨.
 - 주요 영역지수는 '농축산물 수요', '농업생산 여건', '농가소득 여건', '농촌 삶의 질', '농업·농촌 정책 성과'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농업인 심리지수 2025년 3~4분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농업인 심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작년 평균치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그림 1 농업인 심리지수 추이



주: 이번 분기 시범조사에 조사체계 등이 조정되어, 조정 전후 지수 간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 농업인 심리지수 구성 지수의 기여도

구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종합지수	농업인 심리지수	99.45	100.52	99.37
	전 분기 대비 증감(%)	-	1.08	-1.15
구성 지수의 기여도 (%p)	농축산물 수요	-	0.38	-0.22
	농업생산 여건	-	0.28	-0.43
	농가소득 여건	-	0.06	-0.49
	농촌 삶의 질	-	0.18	0.05
	농업·농촌 정책 성과	-	0.19	-0.06

주: 기여도(=구성지수 변화율×구성비)는 구성 지수의 변동이 종합지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2025년 3분기의 전 분기 대비 증감 및 기여도는 해당 분기에 본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어 산출되지 않음. 이번 분기 시범조사에 조사체계 등이 조정되어, 조정 전후 지수 간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2.2. 농축산물 수요에 대한 전망

'26년 1분기 농축산물 수요 지수는 99.81로 전분기 대비 1.11% 하락

- 농축산물 수요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1% 하락하며, 전반적 수요 여건 전망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보임. 단, 작년 3분기(99.07)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낙폭은 제한적이었음.
 - 개별지수를 살펴보면, 농축산물 소비 전망이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온라인 유통과 수출은 긍정적으로 전망되어 지수 하락을 다소 완화하였음.
 - '농축산물 소비 전망'(92.20)은 전분기 대비 6.81% 하락하며 농업인은 향후 농축산물 소비 여건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음. 단, '온라인 유통 전망'(109.77)과 '수출 전망'(101.95)은 각각 소폭 상승하며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음. 신설 항목인 '수입 확대 우려 감소'(80.65)는 100을 크게 하회해, 아직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였음.

표 3 농축산물 수요에 대한 전망

구 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감(%)
영역지수	농축산물 수요	99.07	100.93	99.81	-1.11
개별지수	소비 전반 전망	96.26	98.93	92.20	-6.81
	온라인 유통 전망	107.89	107.65	109.77	1.97
	수출 전망	97.37	100.40	101.95	1.55
	수입 확대 우려 감소(신설)	-	-	80.65 ^a	-

주: 영역지수는 ^a로 표시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로 합성되었음. ^a는 올해 1분기 신설된 문항으로 향후 영역지수 산출에 사용될 계획임. 영역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개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3. 농업생산 여건에 대한 전망

'26년 1분기 농업생산 여건 지수는 98.44로 전분기 대비 2.16% 하락

- 농업생산 여건 지수는 전분기 대비 2.16% 하락한 98.44를 기록하며, 전반적 생산 여건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3분기(99.2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임.
 - 개별지수를 살펴보면, 영농 투자 및 농축산업 발전 전망이 크게 악화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생산단가 하락과 기후변화 영향 완화 기대가 개선되어 지수 하락을 일부 완화하였음. 단, '생산단가 하락 기대'(77.83)는 100을 크게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지속됨.
 - '영농 투자 전망'(93.79)과 '농축산업 발전 기대'(95.62)는 각각 전분기 대비 6.13%, 5.22%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강화되었음. '판매가격 전망'(106.27)은 전분기 대비 2.11% 하락하였으나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였음. 반면 '기후변화 영향 완화 기대'(75.01)는 전분기 대비 3.14% 상승

했으나 여전히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후계자 확보 여부’(75.99)와 ‘병해충·전염병 피해 감소 기대’(77.63)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농업 인력 및 재해 대응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 농업생산 여건에 대한 전망

구 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감(%)
영역지수	농업생산 여건	99.25	100.62	98.44	-2.16
개별지수	농업 전반 전망	91.22	93.73	91.51	-2.37
	생산·작황 전망	92.94	95.82	92.46	-3.50
	판매가격 전망	107.61	108.56	106.27	-2.11
	생산단가 하락 기대	77.41	76.95	77.83	1.14
	농축산업 발전 기대	97.61	100.90	95.62	-5.22
	영농 투자 전망	96.09	99.91	93.79	-6.13
	기후변화 영향 완화 기대	71.73	72.73	75.01	3.14
	병해충·전염병 피해 감소 기대	80.13	80.33	77.63	-3.37
	청년농 유입 전망	87.99	88.35	86.31	-2.30
	귀농·귀촌 전망	88.65	88.30	88.12	-0.21
	영농 지속 의향	-	114.28	109.23	-4.42
	후계자 확보 여부	-	76.37	75.99	-0.49

주: 영역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개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4. 농가소득 여건에 대한 전망

'26년 1분기 농가소득 여건 지수는 97.71로 전분기 대비 2.43% 하락

- 농가소득 여건 지수는 전분기 대비 2.43% 하락한 97.71을 기록하며, 전반적 소득 여건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남. 이는 작년 3분기(99.8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낙폭이 큰 편으로 보임.
 - 개별지수를 살펴보면, 농가소득과 영농 시간 전망이 크게 악화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음.
 - ‘농가소득 전망’(88.27)은 전분기 대비 4.51% 하락하며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었음. ‘영농 시간 전망’(107.48)과 ‘겸업 임금 전망’(105.86)은 100을 상회하였으나 각각 전분기 대비 3.58%, 0.96% 하락하였음. ‘생산비 경감 기대’(74.39)는 100을 크게 하회하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5 농가소득 여건에 대한 전망

구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감(%)
영역지수	농가소득 여건	99.86	100.14	97.71	-2.43
개별지수	농가소득 전망	92.01	92.44	88.27	-4.51
	생산비 경감 기대	74.43	74.88	74.39	-0.66
	영농 시간 전망	110.43	111.47	107.48	-3.58
	겸업 임금 전망	107.80	106.89	105.86	-0.96

주: 영역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개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5.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전망

'26년 1분기 농촌 삶의 질 지수는 100.71로 전분기 대비 0.25% 상승

- 농촌 삶의 질 지수는 전분기 대비 0.25% 상승하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함.
 - 개별지수를 살펴보면, 농촌 소멸위기 완화 기대가 크게 개선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가계 소비 및 보건의료 여건 전망의 하락이 지수 상승을 일부 제약하였음.
 - '농촌 소멸위기 완화 기대'(88.56)는 전분기 대비 9.08%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어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가계 소비 전망'(116.98)과 '보건의료 여건 전망'(101.37)은 각각 3.78%, 3.19% 하락하였으나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였음. '생활형편 전망'(90.93)과 '농촌 관광 전망'(92.39)은 100을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었음.

표 6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전망

구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감(%)
영역지수	농촌 삶의 질	99.54	100.46	100.71	0.25
개별지수	생활형편 전망	88.42	90.76	90.93	0.20
	가계 소비 전망	119.39	121.58	116.98	-3.78
	보건의료 여건 전망	103.62	104.71	101.37	-3.19
	농촌 소멸위기 완화 기대	83.23	81.19	88.56	9.08
	농촌 관광 전망	91.73	93.20	92.39	-0.87

주: 영역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개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6. 농업·농촌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

'26년 1분기 농업·농촌 정책 성과 지수는 100.17로 전분기 대비 0.30% 하락

- 농업·농촌 정책 성과 지수는 전분기 대비 0.30% 하락한 100.17을 기록하였으나, 100을 소폭 상회함.
 - 개별지수를 살펴보면, 영역지수 산출에 포함된 '농정 방향 적절성'(95.04)은 전분기 대비 0.30%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었음.
 - 이번 분기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에 따른 '식량안보 개선 기대'(101.16)만이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을 보였음. 반면 '기후위기 대응력 개선 기대'(99.21), '유통구조 개선 기대'(96.84), '농가소득 개선 기대'(95.83), '농촌 삶의 질 개선 기대'(93.49), '농업인력 문제 개선 기대'(91.14)는 모두 100을 하회하며, 해당 분야의 정책 성과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표 7 농업·농촌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

구분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감(%)
영역지수	농업·농촌 정책 성과	99.53	100.47	100.17	-0.30
개별지수	농정 방향 적절성	94.43	95.32	95.04	-0.30
	농가소득 개선 기대(신설)	-	-	95.83 ^a	-
	식량안보 개선 기대(신설)	-	-	101.16 ^a	-
	유통구조 개선 기대(신설)	-	-	96.84 ^a	-
	농업인력 문제 개선 기대(신설)	-	-	91.14 ^a	-
	기후위기 대응력 개선 기대(신설)	-	-	99.21 ^a	-
	농촌 삶의 질 개선 기대(신설)	-	-	93.49 ^a	-

주: 영역지수는 ^a로 표시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로 합성되었음. ^a는 올해 1분기 신설된 문항으로 향후 영역지수 산출에 사용될 계획임. 영역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개별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03



'26년 1분기 농업인 이슈 모니터링

3.1.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사전 확보 의향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사전 확보 의향을 살펴보면, 계획 없음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미 상당수 농가가 농자재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계획 없음'(43.58%)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농자재는 영농 초기에 미리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조사 시점(3월 중순) 특성상 이미 농자재를 확보했거나 일부를 구매하고 필요시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인 농가가 상당수일 가능성이 있음.
- '계획 있음'(16.79%) 및 '고려 중'(35.01%) 응답을 합산한 51.80%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구매 시기를 조율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임. 이미 실천 중 응답은 1.65%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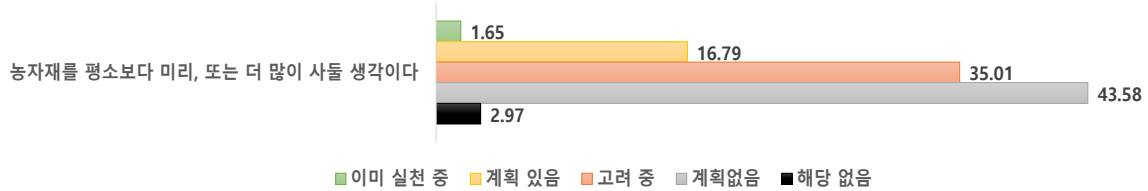
3.2. 기상이변에 따른 올해 영농 계획 조정 의향

기상이변에 따른 영농 계획 조정 의향을 조사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대한 실천·계획 의향이 가장 높은 반면, 시설 보강·투자에 대한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농업재해보험 가입 또는 가입규모 확대'는 이미 실천 중(19.43%)이거나 계획이 있다(23.32%)는 응답이 42.75%로 네 개 항목 중 가장 높았으며,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27.46%로 나타남.
- '농작업 시기 조정'은 이미 실천 중(7.10%) 및 계획 있음(23.96%) 응답이 31.0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고려 중(42.70%)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73% 이상이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 적응 작목·품종 변경'은 계획 없음(31.65%)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려 중(46.23%) 응답이 높게 나타나 향후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였음.
- '시설 보강·투자'는 계획 없음(49.03%) 응답이 네 개 문항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비용에 대한 큰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그림 2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사전 확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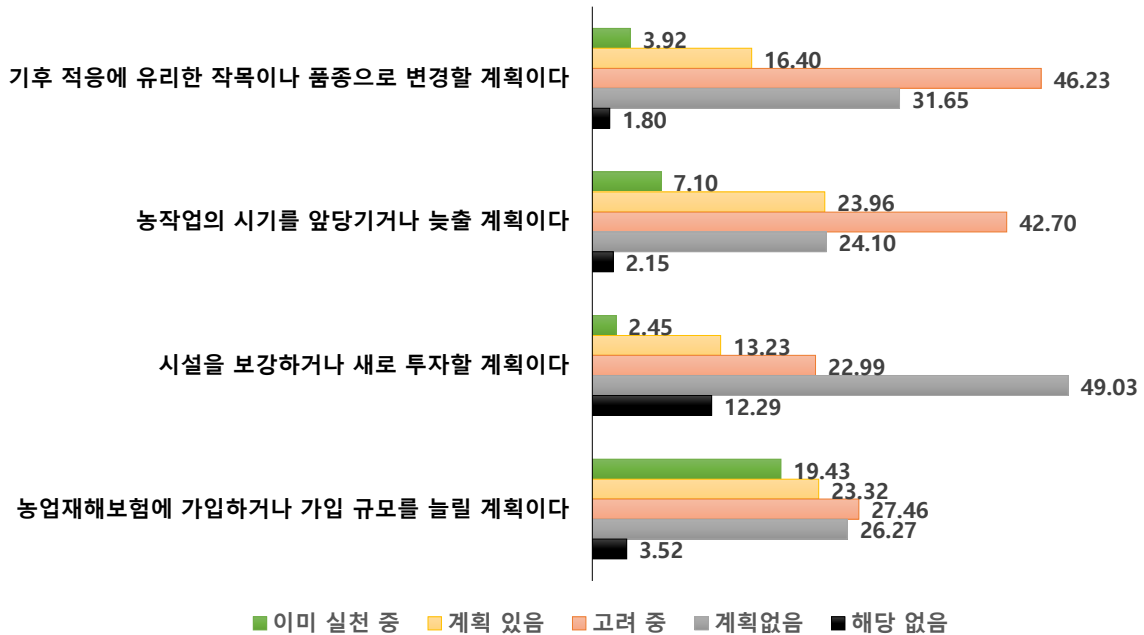
단위: %



주: 조사 문항에서 농자재는 유류, 비료, 농약, 종자 등으로 설명됨. '해당 없음'은 응답자가 스스로 질문이 적용되지 않는 응답자라고 답했음을 말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기상이변에 따른 올해 영농 계획 조정 의향

단위: %



주: 조사 문항에서 농작업은 파종·정식·입식·출하 등으로 설명됐고, 시설은 하우스, 관개시설 등으로 설명됨. '해당 없음'은 응답자가 스스로 질문이 적용되지 않는 응답자라고 답했음을 말함.
 자료: 저자 작성.

0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26년 1분기 농업인 심리지수는 99.37로 전분기 대비 1.15% 하락하며 비관적 전망이 강화

- 농업인 심리지수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영농 여건과 농촌 경제 전반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5개 주요 영역지수(농축산물 수요, 농업생산 여건, 농가소득 여건, 농촌 삶의 질, 농업·농촌 정책 성과)로 구성됨.
- '농가소득 여건'(-0.49%p), '농업생산 여건'(-0.43%p), '농축산물 수요'(-0.22%p), '농업·농촌 정책 성과'(-0.06%p)가 종합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농촌 삶의 질'(+0.05%p)만이 유일하게 종합지수 상승에 기여하였음.
 - 소비 위축 전망과 영농 투자 전망 악화가 이번 분기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전망과 농촌 소멸위기 완화 기대는 개선되어 지수 하락을 일부 완화하였음.

이번 분기 이슈 모니터링에서는 기상이변 및 중동 전쟁에 대응한 농업인의 영농 계획 조정 의향을 조사하였음.

-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사전 확보 의향은 '계획 없음'(43.58%)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사 시점(3월 중순) 특성상 이미 농자재를 확보한 농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계획 있음'(16.79%)과 '고려 중'(35.01%)을 합산하면 절반 이상(51.80%)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상이변 대응과 관련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실천+계획 42.75%)와 '농작업 시기 조정'(31.06%)에 대한 의향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시설 보강·투자'는 계획 없음(49.03%) 응답이 높아 실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시사점

- 농가소득 및 생산 여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 위축과 영농 투자 둔화가 동시에 전망되고 있어 농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농축산물 소비 동향 및 농자재 공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당수 농가가 가격·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농자재 구매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및 비료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어 내년도 농자재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농자재 가격·수급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지속적 모니터링과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상이변 대응과 관련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의향은 높으나 시설 투자 의향은 낮게 나타나, 농가가 보험 중심의 대응에 머무는 것으로 보임. 시설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비용 부담, 정보 부족, 인센티브 미흡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후 적응형 영농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부록



지수 유형 및 산출

- 지수 유형은 32개 조사 항목에 대한 개별지수, 개별지수를 합성한 5개 주요 영역지수, 그리고 주요 영역지수를 합성한 농업인 심리지수로 구분됨. 개별지수는 응답 결과(r_i) ‘매우 긍정’에 150, ‘다소 긍정’에 125, ‘보통’에 100, ‘다소 부정’에 75, ‘매우 부정’에 50을 각각 부여한 값(y_i)의 가중 평균값으로, 50부터 150까지 값을 가지며 100을 기준으로 지수화됨.

$$- \text{개별지수} = \frac{1}{\sum_i w_i} \sum_i w_i y_i, \quad y_i = \begin{cases} 50 & \text{if } r_i = \text{매우 부정} \\ 75 & \text{if } r_i = \text{다소 부정} \\ 100 & \text{if } r_i = \text{보통} \\ 125 & \text{if } r_i = \text{다소 긍정} \\ 150 & \text{if } r_i = \text{매우 긍정} \end{cases}$$

- 가중치(w_i)는 영농형태와 경지규모 두 개 층화변수를 이용한 층화 그룹별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사용됨.
- 개별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개별지수는 조사 항목 구분에 따라 ‘소비상황 전망’, ‘생산여건 전망’, ‘소득여건 전망’, ‘삶의 질 전망’, ‘농정성과 전망’ 5개 주요 영역지수로 합성됨. 주요 영역지수는 개별지수별 2025년 3~4분기의 평균을 기준값(100)으로 설정하여 얻은 재조정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됨.²⁾
 - 주요 영역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농업인 심리지수는 5개 주요 영역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됨.
 - 농업인 심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2025년 3~4분기 평균 대비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이번 분기 시범조사에서 조사체계와 기준값 설정 방식(절대 기준점 → 2025년 3~4분기 평균 기준) 등이 조정됨에 따라, 조정 전후 지수 간 직접적인 수준 비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분기별 조사응답이 누적됨에 따라 기업심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과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함(한국은행, 2026a, 2026b).



참고문헌

- 김상호 외(2026), “농업인 경제심리지수 개발 및 시범조사 결과”, KREI 농정포커스, 제23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은행(2026a),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 _____(2026b),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